

인제대 국가직 지역인재 배출 선두

인제대학교(총장 전민현)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올해로 백병원 창립 88주년, 개교 41주년을 맞이하는 인제대는 '인덕제세(仁德濟世)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속으로, 세계 속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명문 사학'이라는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인제대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를 신설해 인성과 함께 이 대학만이 갖는 도전적이고 창의 융합적인 교양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AI 융합대학, 경영대학을 신설했다. AI 융합대학은 세계적인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컴퓨터공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전공 등의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재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IU-전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IU-다 전공은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1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고, 2학년부턴 2개 이상의 주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이밖에 전국 5개 부속 백병원을 운영하며 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BNIT융합대학 등 우수한 의·생명 관련 학과들을 통해 국내 최고의 의·생명 학문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제대학교는 김해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기술 핵심기관으로 선정돼 매년 70억원씩 5년간 350억원의 사업비로 대학의 세계적인 의·생명 혁신기술을 산업화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특화해 김해시와 함께 차별화된 첨단 의료특구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단계평가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약 160억여원을 지원받아 산학관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인제대학교 학생 취업처와 대학 일자리센터에서는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학년별·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로드맵을 설계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인제대학교는 IPP형 일학습병행사업단 성과평가에서 우수대학(A등급)에 선정됐다. 또 '4단계 BK21 플러스 사업'에 2개 사업단이 예비선정됐고 디자인연구소가 '2020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지난 15년간 경남지역 총 87명의 합격자 중 인제대가 44명의 합격생을 배출해 경남지역 대학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을 인제대에서 배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제대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도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 최초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등교 전 집에서부터 미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자체 선별진료소와 통학버스 지정 좌석제 운용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1 인제대 전경
2 인제대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다.